

민원·제도개선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

공무원 여러분, 제도 개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개선하여 신뢰 받는 공무원으로 국민에게 다가갑시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여야간에 엄청 싸웠습니다. 저도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싸웠는데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행정도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열리고 낮아지고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주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옛날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나빠졌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국민들한테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착실하게 좀더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혁신을 하겠다고 어제 국무회의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개혁하면 공무원들이 또 가슴이 덜컹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며 주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하면 공무

원들 앞으로 공무원 대접받기 좀 어려운 시대로 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 공무원이 가장 천대받는, 가장 비난받는 직업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크게 혁신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이런 혁신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이나 5년 뒤나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참여수석실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발표된 이 사례들을 활성화하자, 잘 만들어 나가자, 잘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여론의 마당에 올라오지 않은, 올라오지 못한 민원들, 그 속에 있는 더 절실한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각 부처에, 자치단체에 제도개선실을 엮시다. 그래서 오늘 같은 사례의 확산을 제도화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도개선담당관 같은 직책을 두고 적극적 서비스와 실질적 사고를 통해 모든 것을 이런 방향으로 풀어 나가는 부서를 만듭시다. 이것이 글자 그대로 제도개선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아닙니까.